

19세기 부산의 熾盛光如來圖와 七星神仰

정 진 희*

| 목 차 |

- I. 머리말
- II. 치성광여래 신앙의 변화에 따른 도상의 변천
 - 1. 불교의 北斗本命信仰 - 七星如來
 - 2. 도교의 北斗本命信仰 - 七元星君
- III. 19세기 부산의 치성광여래도
 - 1.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
 -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회도〉
 - 3.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
 - 4.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여래회도〉
- IV. 19세기 부산의 칠성신앙
 - 1. 치성광여래도상으로 살펴본 19세기 칠성신앙
 - 2. 19세기 부산의 불교 칠성신앙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치성광여래도상은 신앙의 형태에 따라 화면의 구성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어 도상을 통해 신앙의 시대적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19세기 그려진 200여 점의 치성광여래도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부산지역의 사례는 모두 4점으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jini5448@hanmail.net

로 선종이 1861년에 그린 <범어사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는 불교 북두본명소재 신앙의 전통을 반영하여 11폭으로 화면을 나누어 그려낸 형태이고, 1885년 기전이 그린 <국청사 치성광삼존도> 역시 각부도상을 전승하여 10폭으로 작품을 구성한 사례이다. 하나의 화면에 치성광여래를 비롯한 제요성수가 함께 그려진 국박 소장 <치성광여래회도>는 도불의 성수신앙이 혼습되었던 시기 경상도 지역에 나타나는 불교 성수신앙에 대한 보수성을 반영하고, 1891년 민규가 그린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여래회도>의 도상은 세속화된 신앙의 성격을 칠원성군만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확실히 보여준다.

서울과 경기지역 사찰의 칠성각이 도교의 성수초례를 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던 것에 반해 경상도 지역 사찰의 칠성각은 수복을 빌고 재수를 기원하는 장소로 불교 『佛說北斗七星延命經』 말미에 소개된 칠성하강일에 맞춰 칠성을 공양하고 축원하기 위한 전각이었다. 19세기 초 기장으로 유배되었던 심노승이 삼재팔난이 소멸되고 복덕과 건강을 기원하며 생일과 정초에 장안사 칠성전에서 올렸던 기도는 북두본명신앙이 반영된 불교 성수신앙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19세기 중반 부산지역에서 조성된 치성광여래회도의 도상은 불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성향이라는 신앙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신앙의 전통성은 19세기 말 단순화된 기복적 성격으로 바뀌면서 당시 서울과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치성광여래 도상에 나타나는 일반적 보편성을 보이는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19세기 말 조성된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여래회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부산지역 사찰에 봉안되었던 4점의 19세기 치성광여래도 도상은 부산의 불교 칠성신앙에 나타났던 전통성과 보수성이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종교성의 퇴화현상으로 인해 世俗化를 나타내며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치성광여래회도, 칠성각부도, 칠성신앙, 칠원성군, 범어사 치성광여래도.

I. 머리말

아홉 개의 행성이 인간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인도의 점성신앙인 九曜信仰은 중국으로 전해져 전통 북극성 신앙과 결합해 치성광여래 신앙

이라는 새로운 불교 북극성 신앙으로 탄생하였고 이는 9세기 이후 한반도로 전해졌다. 치성광여래도는 북극성을 나타내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구요, 28수 등의 별을 의인화하여 그려낸 불화로 화면에 그려지는 북두칠성은 우리나라 도상에만 보이는 특징적인 모티프이다.¹⁾ 구요에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있던 고려의 치성광여래도와 달리 조선시대 도상에는 대중적 호응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칠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나아가 北斗本命消災로 신앙의 목적이 변화하면서 칠성을 확대해석하여 여러 개의 화폭에 배설하는 各部圖가 등장한다.

전국사찰에 봉안된 불화 가운데 수량적인 면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성광여래도는 대부분이 19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작품들이다. 19세기 그려진 200여 점 가운데 부산지역의 사례는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되었던 2점과 신흥사에 소장된 1점, 국박소장 1점 등이 전한다.²⁾ 영담당 선종이 1861년에 그려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했던 불화는 불교의 북두본명소재 신앙을 반영하여 11폭으로 나누어 그린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였는데, 1885년 기전의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 역시 같은 형태로 조성된 불화였다. 하나의 화면에 그려진 국박소장 <치성광여래회도>는 도불 성수신앙이 혼숙되었던 시기에 불교 성수신앙 전통을 고수하던 부산지역의 보수성을 시각적 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1891년 민규가 그린 <치성광여래회도> 도상은 단순화되

- 1) 정진희, 『한국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_a, 1쪽. 칠성도의 학술적인 명칭은 화면에 그려진 主尊인 부처의 佛名에 따라 불화의 명칭이 정해지는 원칙에 의거해 치성광여래도라고 해야 맞다. 15세기와 16세기 기록과 화기 등을 통해 살펴보면 치성광여래를 그린 불화의 명칭은 <熾盛光如來會>, <熾盛光會>이다.
- 2) 19세기 부산의 치성광여래 도상에 대한 논저로는 박은경 외, 『범어사의 불교미술』, 석당학술총서 19, 2011. 박은경,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연구』, 『문물연구』 26, 2014. 이은옥, 『범어사 소장 칠성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문명대, 『1861년 선종작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특징과 의의』, 『강좌미술사』 46, 2016. 이정은, 『범어사 극락암의 칠성도 조성과 만일회』, 『정토학연구』 25, 2016. 등이 있다.

고 세속화된 신앙의 성격을 반영하여 칠원성군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보인다.

신앙의 형태에 따라 화면의 구성을 달리하는 치성광여래도상은 그 변화를 통해 신앙의 시대적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9세기 치성광여래도의 도상 분석과 관련 기록 등을 살펴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했던 신앙의 흐름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토속신앙 또는 도교 성수신앙의 범주로 해석되는 불교 칠성신앙의 정체성을 알아보겠다. 본 연구를 통해 근대기 부산의 불교 칠성신앙의 변화양상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를 삼고자 한다.

Ⅱ. 치성광여래 신앙의 변화에 따른 도상의 변천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칠성도라 불리는 불화의 도상적 뿌리는 치성광여래 신앙에 있고 그 원류는 인도 구요신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³⁾ 9세기 후반 우리나라에 치성광여래 신앙이 전래 된 이후 『고려사』의 <작제전 설화>에 나오는 勃伽寺 塡星塑像의 사례와 같이 신앙의 대상을 조각과 회화로 표현한 작품들이 시대를 따라 제작되고 있었다.⁴⁾ 19세기 부산의 치성광여래도상 고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도상에서 신앙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칠성여래와 칠원성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서윤길, 『고려밀교사상사 연구』, 불광출판사, 1994, 116쪽. 한반도에서 별을 독립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사상적 배경과 체계적 조직을 구성하여 신앙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건설한 구요당의 구요가 처음이다.

4) 정진희,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으로 살펴본 한반도 점성신앙』, 양사재, 2021, 60~62쪽.

1. 불교의 北斗本命信仰 - 七星如來

고려시대 치성광여래 신앙은 일·월·화·수·목·금·토성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羅睺와 計都라는 별로 구성된 아홉 개의 별이 개인의 운명을 주재한다고 믿는 구요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억불정책을 표방 하였던 조선시대가 되면 신앙의 목적은 국가차원의 천재지변 消災에서 개인의 연수와 기복 등을 기원하는 형태로 변화를 나타낸다. 도상도 이를 반영하여 화면에서 구요는 사라지고 藥師七佛과 유사한 佛性을 갖는 칠성여래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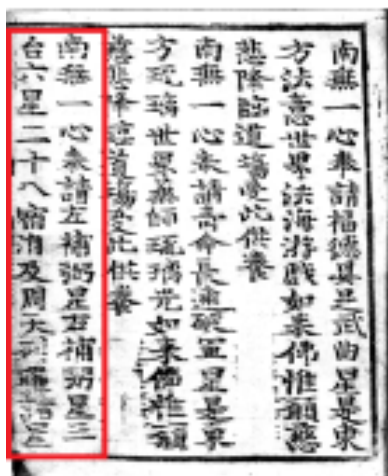
이문건(1494~1567)은 『默齋日記』에서 ‘아들에게 액이 들어 재물을 갖춰 사찰에서 별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이것을 세속에서 七星祭라고 한다’ 하였다.⁵⁾ 이는 당시 사찰의 칠성기도가 대중에게 액을 막아주는 소재신앙으로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전해지는 칠성 의식집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1534년 안동 광흥사에서 개판한 『북두칠성공양문』이다.⁶⁾ 치성광여래와 북두칠성 신앙이 합해진 형태를 보이는 『북두칠성공양문』의 말미에는 칠성 부적과 함께 각각의 칠성이 주재하는 12띠와 공양물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구요의 소재법을 다룬 『梵天火羅九曜』와 유사한데 이



〈그림 1-1〉 〈북두칠성공양문〉,
1534, 광흥사 개판본(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5) 이문건, 『묵재일기』, 1554년 8월 9일.

6) 정진희, 「조선전기 치성광여래 신앙연구」, 『선문화연구』 19, 2015, 255쪽, 262쪽. 16세기 중반부터 불교 의식문에서 칠성청문이 확인되며 조선전기 불화의 화기를 통해 15세기 후반을 즈음해 칠성경에 따른 의례가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복두칠성공양문〉, 1534,
광흥사 개판본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표사: 필자〉



〈그림 2〉〈치성광여래회도〉,
16세기, 마본채색, 98.8×78.8cm,
일본 愛知 寶珠院

는 구요가 12궁을 제어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칠성이 12간지를 나눠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복두본명신앙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⁷⁾
 <그림 1-1> 『복두칠성공양문』 請詞에는 치성광여래와 消災, 息災菩薩을 비롯하여 칠성여래 이외에 좌우보필성 2위, 삼태육성, 28수, 周天列曜의 성군무리가 도량으로 강림하기를 소청하고 있다.<그림 1-2> 일본 보주원 소장 <치성광여래회도>의 구성은 『복두칠성공양문』에 소청되는 성신들의 구성과 유사하다. 칠성여래를 화면 상단 일렬로 배치하여 신앙에서의 비중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지만 조선후기 도상에 빠

7) 정진희,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치성광여래도 도상연구-칠성각부도상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27, 2020_a, 69~71쪽. 칠성 각각이 주재하는 12지와 공양물 참조; 불교에서 칠성 이외에도 본명에 따라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는 사례는 시왕신앙이 있다; 박성영(승범), 「생전에수재의 현장론적 이해와 의례의 축제성 연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0~24쪽.



제2 거문성군 광음자재여래



치성광 삼존



제1 빈랑성군 운의통증여래

〈그림 3〉 『불설북두칠성연명경』 변상 부분, 萬曆8년(1580), 개인소장

지지 않고 묘사되는 공경대부 형태의 칠원성군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⁸⁾
 <그림 2>

1580년 논산 쌍계사에서 개판된 『북두칠성연명경』의 변상판화는 경전에서 빈랑성과 운의통증여래가 짝을 이룬 것처럼 칠성여래와 칠성의 조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칠성각부도의 시원을 살필 수 있는 도상이다. <그림 3> 변상도에서 칠성여래 아래 머리를 풀고 있는 피발형 칠성은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 칠성을 나타내던 전통적인 모티프이다.⁹⁾ 칠성여래와 피발형 칠성을 짝을 지워 각각의 화폭으로 따로 나누어 조성한 까닭은 불교의 북두본명신앙 전통에 따라 12지에 상응하는 각각의 칠성에게 개별적인 소재기도를 올리기를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는 19세기 채색불화로 조성된 칠성각부도의 화기에 기록된 시주자들의 출생년 간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8) 정진희, 앞의 논문(2017_a), 210~212쪽. 차재선, 『조선조 칠성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31쪽. 일본 神戸 多聞寺에 布圍가 그린 칠성여래와 칠원성군 모티프가 없는 嘉靖二十年銘(1535) 치성광여래도가 있다.

9) 성현, 『용재총화』 권2, “태일전에서 칠성과 諸宿을 제사 지내는데, 그 상은 모두 머리를 풀어 헤친 여자 모양이었다”

2. 도교의 北斗本命信仰 - 七元星君

북두칠성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干支에 상응하는 屬星을 본명성으로 삼아 길흉화복을 논하고 예방과 祈祝하기 위해 올리는 도교의 本命醮禮는 불교의 본명소제도량과 그 목적이 같다.¹⁰⁾ 조선 후기 사찰의 불교신앙은 도교신앙으로 대변될 만큼 종교를 구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혼동되고 습합되었는데 치성광여래도상에 그려지는 紫微大帝와 七元星君은 이와 같은 신앙의 성격을 반영하는 모티프이다. 昭格署에서 讀經僧으로 활동하던 盲人 道流僧은 소격서 혁파 이후 일반 민가에서 祝願祈禱를 하거나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았는데 그들이 기도에 사용하던 경전은 도교와 불교 경전이 하나의 책으로 엮은 合本經典이었다.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그들을 통해 민간도교의 칠성신앙은 대중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사찰에서도 도교적 성격을 나타내는 성신이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¹¹⁾

불교의 칠성신앙을 표현한 불화 도상에 도교의 성신인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이 등장하는 원인으로 조선시대까지 성행했던 수륙제의 영향과 더불어 신중신앙에 대한 대중적 호응도 무시할 수 없다.¹²⁾ 사찰에서

10) 김일권, 『우리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원, 2008, 248~251쪽. 불교의 칠성은 당대 『開元占經』에 소개된 貪狼, 巨門, 祿存, 文曲, 廉貞, 武曲, 破軍 등 점성술 관련이라면 도교의 칠성명칭은 태성, 원성, 진성, 뉴성, 강성, 기성, 관성 등은 모두 우주의 근원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11) 정진희, 앞의 논문(2017_a), 125~130쪽. 김윤경,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전개와 변용 - 동학 증산교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2013, 103쪽. 민간도교란 국가에 의해 공인된 관방도교와 달리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앙되고 조직된 도교를 의미한다. 조선후기 민간도교는 이능화가 『조선도교사』에서 소개한 ‘칠성신앙’과 ‘선음즐교’를 들 수 있다.

12) 정진희, 앞의 논문(2017_a), 160~161쪽. 고려시대 도상에서부터 북극성을 나타내는 자미대제 모티프는 그려지고 있다. 북극진군, 일월천자, 오성구요, 십이궁신, 이십팔수는 수륙제 중단의 소청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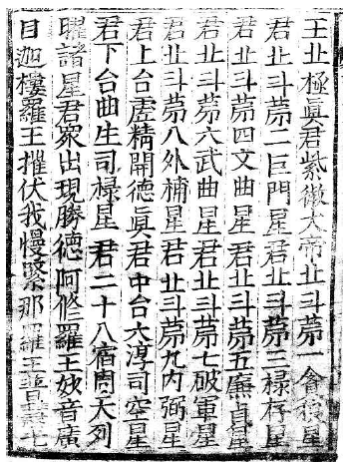
치성광여래와 칠성을 모신 칠성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설되었던 고려의 消災道場에 영향을 받은 消災殿, 북극성신을 모신 곳이라하여 北極殿(北辰殿), 金輪佛頂熾盛光如來를 봉안한 전각이라는 의미인 金輪佛殿, 독성과 산신이 함께 자리한다 해서 三聖閣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¹³⁾ 月渚大師(1582~1655)가 쓴 <北辰殿記>에 의하면 전각의 내부에는 32천을 통솔하는 제석천과 18지옥을 관할하는 시왕과 星神이 함께 모셔져 있어 당시 사찰의 칠성전각은 수록재에서 중단에 소칭되는 대상들이 모셔진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冥部를 비롯해 호법 신중적 의미를 갖는 天部和 仙部, 神部の 무리가 수록재에 중단으로 모셔지는 현상은 수록재가 국가 의례로서의 의미를 잃어가는 조선 중기 이후 나타난다. 불사의 후원자가 상류층이 아닌 일반대중으로 변모하면서 칠성을 비롯한 수록재 중단의 호법신중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복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제석으로 대표되는 신중은 華嚴會上의 諸神들로 모두 화엄경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세속화하는 과정에서 39位이던 신중의 규모는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104位까지 커지면서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이 함께 포함되었다. 수록의궤뿐만 아니라 <神衆請>에서 소칭되는 북극 성신들은 치성광여래와 칠성여래가 아닌 도교의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이다.¹⁵⁾ <그림 4> 신중과 칠성은

13) 정진희, 앞의 논문(2017_a), 122~125쪽. 1397년 권근의 <진관사수록사조성기>에 따르면 사찰의 본당과 구분되어 지어진 수록전의 전각은 상중하단의 의례를 위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의식에 소용되는 불화 등이 모셔져 있었다.

14) 『한글대장경』83, 한글찬술9, <백곡집 외>, 615~617쪽.

15) 정진희, 앞의 논문(2017_a), 222~223쪽. 18세기 <신중창>에서 칠원성군이라는 표현이 보이기 시작하고 치성광여래 도상에서 경상형 칠원성군이 그려진 사례는 18세기 중반 이후이다; 정진희, 『조선 후기 칠성신앙의 도불습합 연구』, 『정신문화연구』 42, 2019, 108쪽. 조선중기 승려 법견의 『崎庵集』(1648)에서 성신기도의 소칭대상이 치성광여래와 일광, 월광편조, 칠성여래와 주천열요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사찰에서 칠원성군을 본격적으로 신앙한 시기는 17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하면 무리가 없을



〈그림 4〉〈청문〉의 신중청 부분.

1769년, 봉정사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모두 연수와 구복, 祈子를 기원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두 신앙의 연계관계는 더욱 친밀감을 나타나게 되었고 104위 신중도상에서 日月天者와 함께 그려지는 卿相形의 자미대제와 칠원성군 모티프는 치성광여래도상에 차용되어 북극성신과 칠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등장하게 되었다¹⁶⁾

조선후기 개인의 복록을 위해 도덕적인 실천을 통한 하늘의 감응이 있어야 한다는 勸善書의 내용도 대중들이 태상노군과 칠원성군을 대표적인 성신으로 인식하게 되는 까닭이 된다.

儒佛仙 삼교의 합일사상을 배경으로 엮어진 권선서에서 도교의 칠성경인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真經(이후 연생경)』을 설한 태상노군은 인간의 복록을 주재하고, 칠원성군은 풍요한 삶과 장수를 보장하는 神性を 보여준다.¹⁷⁾ 옥천사 연대암 시주 권선문에 ‘천상의 칠성님은 중생의 선악을 가려 복록을 내려주니 …’라는 내용은 선행을 통해 연수와 복록을 얻을 수 있다는 권선서의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것이다; 법전, 『奇巖集』 卷之二 ‘奉獻三清上界熾盛光如來日光遍照菩薩月光遍照菩薩北斗七星如來。洎及周天列曜諸星君衆’(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 16) 정진희, 앞의 논문(2017_a), 197쪽. 신중청문에서 제석과 일궁천자, 월궁천자, 자미대제, 북두칠성. 28수는 中壇 日月無量諸天衆에 속하는 신들이며 이는 치성광여래도상의 성중들과 유사하다.
- 17) 정진희, 앞의 논문(2019), 100~103쪽. 연화산 옥천사, 『蓮華山 玉泉寺誌- 玉泉寺의 향기』, 1999, 197쪽. <蓮臺庵重創記文>참조.

Ⅲ. 19세기 부산의 치성광여래도

1.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

칠성각부도는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불화로 북두본명신앙에 따라 각각의 칠성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치성광여래도상이다.¹⁸⁾ 1916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사찰대장>을 보면 당시 범어사 본사를 비롯해 말사 등에도 3~10軸으로 구성된 19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작품들은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도상의 내용은 알 수 없다.¹⁹⁾

제 6	제 4	제 2 (LA카운티)	치성광여래 삼존	제 1 (LA카운티)	제 3	제 5
법해유희 여래	금색성취 여래	광음자재 여래		운의통증 여래	최승길상 여래	나무광달 지변여래
무곡성군	문곡성군	거문성군		빈랑성군	녹존성군	엄정성군

〈그림 5〉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삼존 및 칠성각부도〉 구성

1) 도상의 구성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이후 범어사 칠성각부도)>는 분실되었다가 2015년 해외에서 환수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

18) 정진희, 앞의 책, 145~146쪽.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범어사 본말사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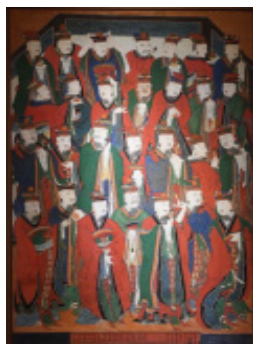
재로 지정되었다. 1861년 影潭堂 善宗이 그린 <범어사 칠성각부도>는 모두 11폭으로 구성된 불화였다.²⁰⁾<그림 5> 각 화폭의 가장자리 여백에는 묵서로 존명이 기록되어 있어 화면에 그려진 존격의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있다. 불단 중앙에 모셔지는 화폭에서 치성광여래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겸비한 모습으로 당당한 불신(佛身)에 수인을 짓고 결가부좌한 형태로 방형의 기단에 올려진 연꽃대좌에 결가부좌 형태로 있다. 여래와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크기를 달리하여 대좌 양옆으로 연꽃을 지물로 가진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있다. 좌우로 배치되는 칠성각부도에는 치성광여래와 유사한 형태로 그려진 칠성여래와 화면 하단 크기를 달리하여 공경대부의 모습으로 묘사된 칠원성군이 짝을 이룬 간단한 구성이며 모든 화폭의 여백은 瑞雲으로 채우고 있다.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려운 4점 가운데 <제7 약사유리광여래도>를 제외한 3점의 도상은 『칠성청문』에서 소청대상이 되는 諸星君衆을 그린 화폭으로 추정된다. <범어사 칠성각부도>의 화면 구성에 28수가 없다는 사실에서 동서남북 일곱 별자리를 나타내는 28수는 화폭을 달리해 따로 조성해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860년대 이후 치성광여래 도상에 그려지는 수성노인의 포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紫微大帝統星君은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개별화폭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28수를 따로 그린 <통토사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 사례를 비롯하여 1868년 하은당 응상의 <운문사 치성광삼존과 칠

20) 현재 범어사 박물관에 소장 된 5점은 스위스 경매에서 낙찰된 3점과 서울 옥션을 통해 구입한 2점을 합한 것이며, 나머지 6점 가운데 미국 LA카운티 미술관에 2점을 제외한 4점의 소재는 현재 알 수 없다; 치성광여래 삼존도 화기 ‘咸豐十一年辛酉」六月日造成七星」十一軸密陽府」載藥山表忠祠」萬日會蓮芝□」移安于東來府」金井山梵魚寺極」樂庵」緣化秩」證明華雲觀□」誦呪比丘性咸」金魚秩」片手影潭善宗」比丘琰麟」都監喚月度閑」供養主有直」化主海城錦□」獨辦大施主」庚午生薛氏」三岡」住持有□」書記管俊」三寶尙信」; 환수 경위와 범어사로의 봉안과정에 대해서는 이정은, 앞의 논문, 182~190쪽 참조.



〈그림 6〉 28수도,
조선후기, 견본채색,
〈통도사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도〉부분,
79.5×63.5cm,
통도사성보박물관.



〈그림 7〉 28수도,
1868년, 견본채색,
〈운문사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도 부분〉,
개인소장.



〈그림 8〉 자미대제, 삼태성,
남두육성, 백양사 〈치성
광여래와 칠성각부도〉
부분, 1877년, 견본채색,
95.7×73.7cm, 울릉도
대원사.

성각부도(1868)>와 자미대제를 개별의 화폭에 그린 <백양사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1877)>의 도상이 <범어사 칠성각부도>의 전체적인 구성을 유추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그림 6, 7, 8>²¹⁾

2) 〈범어사 칠성각부도〉의 제작 화승과 조성배경

(1) 〈범어사 칠성각부도〉의 제작 화승

<범어사 칠성각부도>는 1861년 밀양 표충사 만일회에서 畫僧을 초빙해 조성했던 칠성전 <치성광여래회도>, <신중도>, 서래각 <아미타여래회도>와 함께 제작된 불화였다. <범어사 칠성각부도>를 제외한 나머지 3점의 불화들은 모두 표충사에 모셔진 것에 반해 <범어사 칠성각

21) 운문사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도>는 모두 10폭으로 조성된 불화로 현재 3폭 정도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다. 이 그림은 치성광여래 삼존과 칠성여래 화폭 이외에 자미대제와 28수를 그린 개별화폭으로 구성되었다.

부도> 11폭은 지역을 달리하여 범어사 극락암으로 이운되어 봉안되었다. 이들이 그림을 그린 수화승 영담당 선종은 1849년부터 금암당 천여가 이끄는 화승집단에 동참화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860년대부터 영담이라는 당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종의 화풍에는 스승인 천여의 영향과 더불어 새로운 구성과 존상을 시도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²²⁾

선종과 함께 이 그림을 그린 화승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蓮湖堂 奉巖 또는 奉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천여에서 이어지는 화맥을 따르는 선종과의 화연으로 추정해 본다면 응상과 화맥이 이어지는 봉련 보다는 봉의가 타당할 것이다.²³⁾ 蓮湖堂 奉宜(奉巖)는 천여의 화맥을 이었다고 평가되는 화승이다. 봉의가 처음 제작한 불화는 1860년 능가사에 조성된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로 수화승은 鎡衍이었다. 이 불화 제작에는 영담당 선종도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화연에 따라 1861년 <표충사 아미타여래회도>, <범어사 칠성각부도>와 1866년 <통도사 안양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의 조성에 함께하고 있다.²⁴⁾

(2) <범어사 칠성각부도>의 조성배경과 시주자

1861년 범어사 극락암 중수 불사는 표충사 만일회의 도움으로 진행되었고 <범어사 칠성각부도> 역시 만일회의 조력으로 조성된 불화였다. 불화의 조성에서 화주를 담당했던 표충사 승려 海城堂 錦察은 범어

22) 정진희, 『중봉당혜호의 작품과 화맥연구』, 『선문화연구』 30, 2021, 333쪽. 영담당 선종은 1860년 서울 흥국사 화승이었던 쌍운당 희원을 수화승으로 모시고 <운흥사 금선암 신중도>와 <아미타여래회도>를 조성한 사실이 있어 선종의 화풍 변화에 서울 경기지역 화풍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3) 문명대, 앞의 논문, 166~167쪽. 이은옥, 앞의 논문, 57쪽. 이정은, 앞의 논문, 198~199쪽.

24) 정진희, 앞의 논문(2020_a), 81쪽. 봉련의 작품에는 치성광여래도가 없는 것에 비해 봉의는 1860년 능가사, 1866년 통도사 안양암, 1893년 고성 옥천사 안양암 등에서 칠성각부도상을 활용한 치성광여래도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사에 주석했던 蔚菴堂 敬儀의 제자였다. <그림 9> 경의는 범어사 극락암 중수에 원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사승관계에 따라 1861년 금찰이 주석했던 표충사의 만일회가 극락암 불사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²⁵⁾

화기에 보이는 시주자는 모두 3명으로 경오생 설씨와 정미생 윤영우 그리고 아들로 기록된 경술생 성규이다. 기존 연구에서 경술생 성규는 경오생 설씨와 부부인 정미생(1787년) 윤영우가 환갑이 넘어 얻은 아들로 해석하였다. 1862년 5월에 제작된 <범어사 동치원년명 금고>의 시주질은 <범어사 칠성각부도> 시주자를 추정하는



〈그림 9〉〈울암당 경의진영〉, 19세기, 견본채색, 126.5×91.0cm. 범어사 정보박물관.

데 도움이 된다. 그 내용을 보면 ‘銘文 梵魚寺大雄殿金口』同治元年壬戌五月日重二百五十二斤七兩』施主甲寅生尹性禧兩主保体 率子』丁未生英佑』庚戌生英秀』本府西下里』’로 이에 따르면 정미생 영우는 1787년생이 아닌 1847년생으로 설씨의 남편이 아니라 큰아들이었다.²⁶⁾ <범어사 칠성각부도> 화기에 아들 경술생 성규라 기록된 인물은 아마도 범어사 금고에 1850년 경술생 영수라 새겨진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어사 칠성각부도>와 <범어사 동치원년명 금고>를 시주한 인물들은 갑인생(1794) 윤성희와 경오생(1810) 설씨부인 사이에 태어난 1847

25) 이정은, 앞의 논문, 199~202쪽.

26)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II』 자료집, 2010, 133쪽.

년생 영우와 1850년생 영우(성규)이다. 이들은 지금 부산의 부전동 부근으로 추정되는 동래부 서하리에 살고 있었던 가족이었다. 범어사 불사에 대시주자로 이름을 올린 경오생 설씨가 표충사에 소장된 <慶尙道各邑稷負懸板>에 계원으로 30량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시주한 경오생 설씨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동래부에 거주하던 신도가 표충사에서 진행되었던 불사에 시주자로 나설 수 있던 배경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회도>

19세기 중반 이후 조성사례가 드물어지는 칠성각부도와 달리 하나의 화면에 주천열요을 모두 담고 있는 치성광여래회도는 전시대를 걸쳐 꾸준히 제작되었다.²⁸⁾ 칠성신앙에 대한 道佛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성신들의 정체성은 본명 소재에 대한 개념보다는 연수와 기복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변화해 갔다. 때문에 1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본명신앙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는 각부도상은 점차 사라지고 간소화된 격식을 표현하면서 하나의 화면에 불교의 칠성을 의미하는 칠성여래와 칠원성군 등이 함께 그려지는 설법회도 형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²⁹⁾ 더불어 칠성 의례처가 독성과 산신이 함께 모셔지는 전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발생하는 공간적인 제약 역시 치성광여래회도 위주로 작품이 제작되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도상의 구성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부산의 사찰에서 조성된 <치성광여래회도>가 있다. 이 작품의 화기에 시주자의 주거지가 ‘本府 沙下面’이라는 사실

27)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78쪽.

28) 불화의 명칭은 문화재청 공고 제2019-271호에 따라 치성광여래회도로 하였음.

29) 정진희, 앞의 책, 155~162쪽.



〈그림 10〉 치성광여래회도, 19세기, 견본채색, 201×19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에서 불화의 조성시기는 『東萊府事例』(1868, 고종 5)에 의거 해 釜山面의 신설과 함께 동래부 沙川面이 沙上面과 沙下面으로 분리되었던 1868년 이후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의 중앙에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겸비한 넓은 어깨에 붉은 대의를 두른 당당한 형태의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관식에 일월을 올리고 연꽃을 쥐고 있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결가부좌 형태로 좌우 대칭구도를 이루며 배치되었다. 여래의 신광 주위에는 지장보살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선악동자가 있어 일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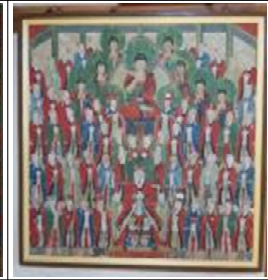
치성광여래도상의 구성과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의 가장 윗부분에는 거신광배와 원형의 두광을 겸비한 칠성여래가 합장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 아래 칠성여래와 짝을 지워 홀을 가진 경상형의 칠원성군이 배치되었다.

화면 하단 중앙 일월동자의 협시를 받고 서 있는 소형의 자미대제는 크기에서 치성광여래와 尊格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자미대제를 중심으로 3단 횡렬구도로 34명의 경상형 인물은 28수와 삼태육성을 그린 것이다.<그림 10, 11, 12> 인물들을 표현한 필선과 더불어 세부적인 묘사에 보이는 공교함 등에서 이 작품은 뛰어난 화가의 기량이 충분히 발휘된 수작임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1〉 치성광여래, 그림 10의 부분 〈그림 12〉 자미대제, 그림 10의 부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된 <치성광여래회도>는 화면 중앙 치성광여래 삼존을 비중있게 배치하고 나머지 여백에 50명이 넘는 성신을 한 화면에 열을 맞춰 배열하는 구성이다. 횡렬식 구도로 열을 맞춰 28수를 그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영담당 선종이 그린 <표충사 치성광여래회도(1861)>, <경주 길상사 치성광여래회도(1866)>와 도상적 친연성이 나

		
밀양 표충사 〈치성광여래회도〉, 1861년, 견본채색, 182×166cm, 소재미상.	〈치성광여래회도〉, 조선후기 (함풍년간, 1851-1861), 견본채색, 136×139.6cm, 영국박물관.	〈치성광여래회도〉, 1866년, 견본채색, 134×137cm, 경주 길상사.

〈그림 13〉 1860년대 영담당 선종과 천여 집단의 치성광여래회도상

타난다. 咸豐年間 조성된 영국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회도>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구도의 치성광여래도상은 영담당 선종을 포함하여 전라도 지역의 대표 화승인 금암당 천여의 화풍을 이어가는 화승집단에 의해 처음 제작되었던 새로운 도상이었다.<그림 13>

천여와 그의 제자 화승들이 그린 치성광여래도상에서 특징적인 모티



〈그림 14〉 〈태상현령북두본명연생진경〉 변상도, 18세기, 개인소장본.

프는 정면을 향해 의자에 앉아 있는 자미대제이다.³⁰⁾ 이러한 형태의 자미대제는 18세기 <연생경> 변상도에서 사람의 선과 악을 살펴 복과 벌을 내리는 주재자(主宰者)인 태상노군을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그림 14> 도불의 칠성신앙이 혼용되던 시기 전라도 지역의 화승들은 <연생경> 변상도의 태상노군 모티프를 차용하여 치성광여래 도상에서 비중이 있게 자미대제를 그려내는 독창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³¹⁾

19세기 중반 부산 사찰에서 조성 봉안된 <치성광여래회도>에는 치성광여래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미대제보다 월등히 크다. 서울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치성광여래도에 치성광여래와 자미대제가 거의 동등한 크기로 화면을 양분하여 배치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뚜렷이 구분되는 도상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박소장 <치성광여래회도> 화면이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교 칠성신앙을 나타내는 도상으로 치우쳐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불교의 전통을 고수하였던 부산지역 신앙을 반영하여 표현한 지역적 특징 때문으로 해석된다.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회도>의 화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회도>의 화풍은 하은당 응상을 비롯한 사불산 화파와 친연성을 보인다. 화면에 그려지는 인물의 묘사와 오방색을 이용한 광배 내부의 표현, 독특한 바림기법을 이용해 표현한 의습의 표현들은 응상에서 기전으로 이어지는 사불산 화파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³²⁾ 기존의 치성광여래 도상에서 그 사례가 드문 치성광

30) 정진희, 앞의 논문(2019), 101쪽. 도상에 자미대제를 의미하는 모티프가 그려진 시기는 <연생경> 판본이 간행된 17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된다.

31) 정진희, 앞의 논문(2017_a), 250~251쪽. 『석씨원류응화사적』에 표현된 貂蟬冠을 쓴 성종의 모습이 전라도 지역 치성광여래도에서 칠원성군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처럼 자미대제 역시 판본의 영향을 받아 차용된 도상으로 추정된다.

32) 화풍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활동했던 영운의 특징이 보여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



〈그림 15〉 선악동자,
〈그림 10〉 부분.



〈그림 16〉 동자형 칠원성군, 1861,
〈통도사 서운암 치성광여래회도〉 부분.

여래 좌우에 배치된 善惡童子 모티프는 응상과 관련이 있다.〈그림 15〉 응상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선악동자의 모티프를 지장시왕도 이외의 불화 도상에 사용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1861년에 그린 <통도사 서운암 치성광여래회도>의 동자형으로 그려진 칠원성군의 모습에서부터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³³⁾〈그림 16〉

응상은 1866년 통도사 안양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 제작에서 영담당 선종과 함께 작업하면서 천여의 제자들이 애용하였던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자미대제 도상을 채택하여 작품을 구성하였다. 안양암본 이전과 이후 응상이 그린 치성광여래도에서 유사한 형태가 보이지 않으며, 1864년 응상이 서울 도선암 칠성불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의자에 앉은 자미대제 모티프는 도불 칠성신앙이 한 화면을 양분해 공존했

하다.

33) 김경미, 「화승 하은 응상의 교유관계와 불화 특징 고찰」, 『강좌미술사』 52, 2019, 244~245쪽. 원형의 구도 속에 선악동자가 그려지는 사례는 <영월 보덕사 지장보살도>(1786)에서부터 보이고 아미타여래 도상에서는 상견이 그린 <아미타여래회도>(1788)를 비롯해 18세기 이후 작품들이다; 수룡당 기전이 그린 <해인사 길상암 치성광여래회도>(1874년)에도 대좌 앞 동자의 모티프가 보이지만 이는 선악동자가 아닌 서울과 경기지역 치성광여래강림도상에 그려지는 공양물을 갖는 동자형태와 유사하다.

던 서울과 경기지역 화풍의 영향과 함께 선종과의 화연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³⁴⁾

3.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

1) 도상의 구성

부산 신흥사에 소장된 <치성광삼존도>는 1885년 범어사 말사인 국청사에서 조성된 불화였다.³⁵⁾ 이 작품은 한 폭의 비단에 일광과 월광보살을 협시로 둔 치성광여래를 화면 상부에 배치하고 그 아래로는 일궁, 월궁천자를 협시로 둔 자미대제 좌우에 輔星과 畢星을 의미하는 洞明과 隱光天子를 그렸다.<그림 17> 七星各幀이라는 화기의 내용과 더불어 화면 구성에서 칠성여래와 칠원성군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서 이 작품은 칠성각부도 가운데 중앙에 봉안되는 1폭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조사 사찰재산 조사대장에 따르면 당시 국청사에는 10폭으로 구성된 칠성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전체 구성은 치성광여래 삼존을 그린 1폭과 칠성각부 7폭 그리고 28수 등을 그린 2폭을 합한 총 10폭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18> 이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불화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지만 치성광여래 삼존과 자미대제를 그린 이 화폭으로 미루어 보면 칠성여래와 칠원성군이 거의 동등한 크기로 화면을 양분해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화면에서 금륜을 가진 치성광여래는 좌우 협시보살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진 방형의 신광에 원형의 두광을 겹치하였는데 佛顏의 묘사는 도식화되어 경직된 느낌이 강하다. 여래의 두광 좌우 화면의 여백을 메우고 있는 구름 사이로 달과 해를 의미하는 월륜과 일륜이 그려있는 도상적

34) 정진희, 앞의 논문(2019), 91쪽.

35) 화기 ‘光緒十一年□ 二月日畫成□ 七星各幀因□ 奉安于東□ 金井山國清□ 本菴大施□...’



〈그림 17〉 〈국청사 치성광삼존도〉, 1885년, 견본채색,
부산 신흥사(사진촬영: 최준욱)

특징을 보인다.³⁶⁾ 화면 하단 신광과 두광을 겹비한 자미대제가 여래와 거의 대등한 크기로 측면을 향한 입상이 아닌 정면을 향해 앉아 있다. 화면의 구성에서 부처보다 존격이 낮은 모티프가 여래의 전면에 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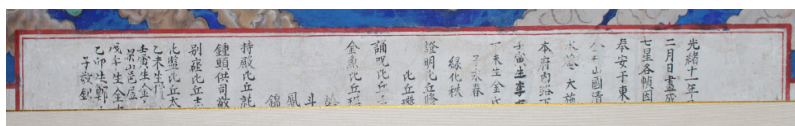


그림 18.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 화기 부분

36) 치성광여래 도상에서 일광과 월광보살의 지물인 일륜과 월륜이 강조되어 그려지는 사례는 19세기 중반 익찬계열이 그린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19세기 말~20세기 초 작품에서도 드물지 않게 그려진다.

형태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는 1860년대 작품들과 비교해 신앙적 변화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2) 화승과 도상적 특징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를 그린 화승은 19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수룡당 기전으로 이 불화는 그의 작품 가운데 거의 말기에 해당한다. 도상에서 보이는 경직성과 형식화 등은 1885년 이후 기전의 작품에 나타나는 화풍으로 이 불화를 같이 그린 화승은 斗明과 翰奎 등을 비롯한 4명이다. 기전이 그렸던 <동화사 내원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1876)>와 <청곡사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도(1877)>의 치성광여래 삼존도에는 자미대제가 배제된 구성을 보이는 것에 반해 이 작품에서는 화면을 양분하여 도불의 북극성신을 한 화면에 상하로 배치하고 있다.<그림 19> 이와 같은 구성은 경기지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해 지방 사찰의 불화에서는 19



<그림 19> <동화사 내원암 치성광삼존도>, 견본채색, 1876, 내원암 칠성각.

세기 말엽에 그려지고 있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질게 배어있는 도교의 칠성신앙 영향이 지방 사찰의 불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이 불화의 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 참조> 서울과 경기지역 치성광여래 도상에서 19세기 후반 자미대제의 비중은 수성노인이 등장하면서 점차 축소되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의 도상은 그 이전 시기의 화면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역 사찰의 보수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4.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여래회도>

1) 도상의 구성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여래회도(이후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는 전각의 높이가 낮아지고 벽면이 가로로 길어지는 시대적 건축양식에 맞춰 가로축이 긴 장방형의 화면에 존상들을 횡렬로 배열하는 구도를 택해 작품을 구성하였다. 이 불화의 중심은 화면의 1열 가로로 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흰 구름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원형의 踏床에 발을 얹은 칠원성군이다. 각각의 칠원성군은 흉배의 착용, 지물과 동작에 변화를 주어 다양함을 나타냈고 그들의 무릎 아래로는 크기를 달리하여 좌우에 복숭아와 향로 등을 들고 있는 시동과 동녀들을 그렸다.<그림 20>

구름으로 화면을 상하로 분할 한 다음 그 위로 그려진 2열의 중앙에는 반원형의 구획 속에 중앙 치성광여래는 일월 冠飾을 부착한 보관을 쓴 일광, 월광보살과 함께이다. 반원형으로 포치 된 칠성여래 가운데 정상 부분에 자리한 여래는 치성광여래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고 화면 거의 대부분을 칠원성군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당시 신앙에서 치성광여래의 존재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20〉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여래회도, 1891, 견본채색, 103×173.5cm,
범어사 성보박물관.

향 우측에 포치 된 두광을 겸비한 3구의 인물은 자미대제를 묘사한 것으로 일궁천자와 월궁천자가 아닌 북두칠성의 좌우에 그려지는 輔弼星이 홀을 가진 경상형의 모습으로 협시하였다. 화면의 반대편에는 두광을 겸비한 삼태육성을 각각 2위씩 짝을 지워 그렸다. 천공의 여백은 양청색으로 채우고 상서로운 구름으로 화면의 가장자리를 나타냈다.

2) 제작화승과 도상적 특징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는 1891년 수화승 玫奎를 비롯해 典學, 德林이 동참하여 조성한 불화이다. 민규의 사승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학은 四佛山 畫派을 이끌었던 하은당 응상과 해인사 승려였던 수룡당 기전의 영향을 받은 화승이었고 덕림 역시 기전과 불화를 함께 그린 사례가 있다. 1880년대 이후 기전은 사불산 화파의 화풍을 수용하여 작품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화업관계를 미루어 보면 민규 역

시 사불산 화맥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수룡당 기전과의 관계가 주목된다.³⁷⁾

1887년 축연이 그린 <화성 봉림사 치성광여래회도>는 화면 하단 칠원성군에 포커스를 맞춰 강조된 형태이다. 칠성여래는 화면 상부 타방불과 같은 모습으로 축소해 그려내는 방법으로 신앙의 중심이 칠원성군에 맞춰진 현상을 나타낸다.<그림 21> 여래회도 뿐만 아니라 각부도 형태로 조성된 도상에서도 동일한 현상은 나타난다. 大皇帝陛下와 黃貴妃, 皇太子殿下와 英親王殿下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성한 통도사 극락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도>는 왕실의 명을 받아 안종설이 언양군수를 지냈던 1902년에 조성한 불화이다. 19세기 후반 칠성여래를 중심으로 구성되던 칠성각부도상과 달리 이 작품은 칠원성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칠성여래는 관식의 化佛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그림 22>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에는 치성광여래와 자미대제가 화면에서



〈그림 21〉〈화성 봉림사 치성광여래회도〉, 1887년, 면본채색, 140×174cm, 봉림사 삼성각.



〈그림 22〉〈제2 거문성군도〉, 1902년(추정), 면본채색, 116×105cm, 통도사 극락암 <치성광삼존과 칠성각부도> 부분.

37) 박은경, 앞의 논문, 192쪽.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교적 성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도상인 壽星老人도 없다. 정수리가 봉긋 솟아오른 수성노인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치성광여래도에서 처음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티프는 「연생경」을 설한 태상노군, 즉 老子를 의미한다.³⁸⁾ 때문에 화면의 대부분을 칠원성군에게 할애한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는 도불 습합현상을 보여주던 19세기 중반 이후 신앙의 세속화가 더 진행되면서 칠원성군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20세기 이후 불교를 비롯해 무속화에서 치성광여래 삼존과 칠원성군만으로 구성되는 치성광여래도상의 과도기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작품이다.

IV. 19세기 부산의 칠성신앙

1. 치성광여래도상으로 살펴본 19세기 칠성신앙

17세기 후반 사찰에는 도교의 <연생경>이 불교의 칠성신앙을 설하고 있는 「불설불두칠성연명경(이후 연명경)」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민간으로 뿌리내린 도교의 성신들 가운데 인간의 생사에 실제적 권능을 지닌 칠성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뜨거웠고 이를 반영하여 자미대제를 중심으로 하는 도교 칠성신앙의 체제에 불교 칠성신앙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세기 이후가 되면 도불의 칠성신앙은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숙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도상에서도 불교의 칠성여래보다 도교의 칠원성군에게로 포커스가 집중된다.

38) 정진희, 「치성광여래도에 그려진 신선문자도상 고찰」, 『한국민화』 13, 2020_b, 152~157쪽.

關王에 대한 의례도 정조대에 이르면 국가의 중사로 수용되고 고종 때에는 도교의 경전이 어명에 의해 간행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도 도상에서 칠원성군이 부각되는 원인으로 한몫을 차지한다. 사찰의 의식문을 보충하여 통일한 『작법귀감』(1826년)에는 칠성여래와 칠원성군이 함께 봉청되던 이전 시기 『청문』과는 달리 칠성기도의 축원에 칠성여래가 빠져 있다. 이것은 신행의 간소화 현상과 더불어 기복적인 의미를 짙게 내포하는 신앙으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기원의 대상이 칠원성군으로 응축되어진 변화된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준다.

신앙을 대변하듯 19세기 중반이후 치성광여래 도상은 불교와 도교의



〈그림 23〉 불암사 〈치성광여래회도〉, 1855년, 견본채색,
191.5×192cm, 불암사 칠성각.

2중적 신앙체계를 보이는 구도로 조성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불암사 칠성광여래도(1855)>를 보면 화면 상부에는 불교 성수신앙을 대변하는 칠성광여래가 일반적인 강림도상에 그려지는 소가 아닌 도교적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 사슴이 끄는 수레에 걸가부좌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³⁹⁾ 그 좌우 칠성여래와 동자형 칠원성군, 28수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화면의 하부에는 신평과 두광을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미대제를 중심으로 좌우로 칠원성군이 홀을 가진 경상형 인물이 그려져 있어 하나의 화면을 도불 성수신앙이 양분한 형태로 그려져 신앙에서 나타나는 도불혼습현상을 도상으로 보여준다.⁴⁰⁾<그림 23>

서울 삼각산 道詵庵의 칠성각은 조선후기 純元王后의 동생이며 세도 정치의 중심에 있던 金左根(1797-1869)의 시주로 1863년에 건립된 전각으로 내부에 걸리는 칠성광여래도는 하은당 응상을 초빙하여 조성한 불화였다. 이듬해 김좌근의 시주로 칠성기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경전은 도교의 『연생경』이지만 경전명과 版心, 跋文에는 불교의 칠성경전인 『연명경』이라 지칭하고 있다. 시대를 호령했던 세도가에서 유학자들에 의해 淫祀로 치부되었던 칠성을 신앙하고, 사찰의 칠성기도에 사용하는 경전의 변상도를 太上老君을 의미하는 壽星老人과 칠원성군만으로 구성한 사실은 사회에 질게 배어 있는 도교 성수신앙의 영향과 더불어 당시 불교 칠성신앙의 성격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⁴¹⁾<그림 24>

39) 정진희, 「서울 안양암 금륜전 칠성광여래 조상과 불화연구」, 『서울학연구』 69, 2017_b, 92~94쪽. 근대기 칠성광여래 도상에서 강림형식으로 제작된 사례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40) 정진희, 앞의 책, 152쪽. 이 그림에서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모티프가 칠성여래를 비롯해, 칠원성군, 동자형 칠성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 까닭은 동서남북에 모두 북두칠성이 존재한다는 五斗尊靈 사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41) 정진희, 앞의 논문(2019), 90쪽, 109쪽. 문신 김병학(1821-1879)도 칠성여래가 모셔진 파주 보광사 광응전에 장수와 구복을 기원하며 전답을 시주하였고 인왕산 칠성암의 신당에서 과거급제를 기원하는 유생과 선비들이 재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림 24〉 도선암 본 〈연생경〉 삽도, 1864, 삼각산 도선암 판각, 국립중앙도서관.

1869년 유점사에서 개관 된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과 1883년 해인사에서 중간한 『청문』의 서문에는 도교의 성신체계를 따라 북극 자미원의 칠요를 신앙하고 도가의 태상노군이나 원시천존을 모시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세에 신봉한 것으로 괴이하다 평하고 있다. 더불어 사찰에서 행해지는 도교적 칠성신앙은 사설을 끼고 영복을 구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불교 칠성신앙은 약사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칠성여래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였다. 사찰의 칠성신앙에 대하여 자성하고 비판하는 이와 같은 글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불교교단에 만연한 도교적 색채를 잘 대변한다.⁴²⁾

2. 19세기 부산의 불교 칠성신앙

서울 <興天寺 七星閣 重創 丹牘記文(1870년)>을 보면 당시 사찰의

42) 정진희, 앞의 논문(2019), 112~113쪽.

칠성기도는 도교의 성신에게 올리는 星宿醮祭와 같은 성격이었다.⁴³⁾ 서울과 경기지역 사찰에 칠성각이 많은 이유를 왕실의 안녕과 수복을 기원하며 성수초례를 거행했던 소격서가 혁파되면서 그 전통이 사찰로 이어져 왔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사찰의 칠성각이 도교의 성수초례를 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던 것에 반해 경상도 지역 사찰의 칠성각은 불교 『연명경』 말미에 소개된 七星下降日에 맞춰 칠성을 공양하고 축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건한 전각이었다.⁴⁴⁾ 현존하는 치성광여래도 가운데 각부도 형식은 2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경상도 지역 사찰에서 조성된 특징을 보인다.⁴⁵⁾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각부도 형태의 작품이 드문 것과 비교하여 불교 북두본명 신앙이라는 신앙의 전통이 고수하며 전승했던 지역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조선후기 유학자였던 효전 심노승(孝田 沈魯崇, 1762~1837)은 1801년부터 1806년까지 약 6여 년을 경상도 기장현(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매일의 일상을 『南遷日錄』으로 남겼다. 그가 찾았던 기장의 長安寺와 安寂寺의 칠성전 내부에는 8폭의 족자가 걸려 있고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치성광여래 불상과 칠성각부도가 전각 내에 배설되었던 것 같다. 각각의 칠원성군 앞에 놓인 사기로 만든 淨水供養器는 각각의 칠성에게 따로 예식을 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⁴⁶⁾

43) 『한국의 사찰문화재—서울특별시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165쪽.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상지사, 2008. 360쪽. 칠성전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역불정책에 따라 도불의 천문성수 전당들이 통폐합 축소되었고 소격서 혁파 이후 공식라인이 사라지면서 사찰 속에 재생된 전각으로 추정했다.

44) 연화산 옥천사, 앞의 책, 197쪽. <蓮臺庵重創記文>참조.

45) 정진희, 앞의 책, 147~148쪽.

46)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범어사 사찰재산대장> 국청사 자료. 범어사의 말사인 國淸寺에 있었던 7개의 七星器와도 부합되는 사실이다.

기장에 머무르는 동안 심노승은 정초와 생일에 사찰을 찾아 칠성기도를 올렸다.⁴⁷⁾ 이는 본명일에 행했던 소재기도와 칠성이 갖는 신중적 성격에 따라 1년간의 평안을 염원하며 정초에 사찰에서 거행했던 신중기도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는 주지승 興善의 주도하에 치성광여래와 七眞君像 앞에 촛불과 향을 켜서 예를 올릴 준비를 한 다음 <칠성청문>에 의거 해 의식을 행하고 疏文을 읽고 마지막으로 焚幣疏하면서 기도를 마쳤다. 심노승이 장안사에서 올렸던 칠성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사찰에서 <연생경>을 염송하였던 것과는 신행적 차이를 보인다. 심노승은 ‘연말에 산사에서 심신을 깨끗이하는 공양을 하고 새해 복을 구한다’는 기장현의 풍습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⁴⁸⁾ 기장지역의 칠성신앙이 생경했던 까닭은 그가 長安寺의 칠성전을 처음 찾았을 때 그곳을 醮祭를 지내는 장소로 인식하였던 것과 같이 기복적 성향이 강했던 도교적 성수신앙의 영향이 짙은 서울과 경기지역 칠성신앙에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⁴⁹⁾

대구 동화사 서별당 <칠성각부도>(1850) <第二光音自在如來巨文星君圖>의 화기에 시주자로 기록된 ‘癸亥生璘治 乙丑生金喆敦 癸亥生崔氏 丁丑生金甲龍’은 모두 칠성의 2번째 별이 본명이 되는 소띠와 돼지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같은 방식에 따라 <범어사 칠성각부도>에서 경술생인 성규는 제3 녹존성군도에 정미생 영우는 제6 무곡성군도의 화기에 대시주자로 되어 있다. 本命에 따라 화폭을 달리하여 시주질을 기입한 이유는 아마도 각부형태로 제작해 달라는 사찰 또는 시주자의 요청을 반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생일날 사찰을 찾아 치성광여래와 칠원성군에게 본명의 소재를 기원하고, 매년 정초 삼재팔난이

47) 심노승(1762-1837), 『南遷日錄』4, 辛酉 九月初四日, “…議明日(生朝)供飯安寂寺.”

48) 『남천일록』4, ‘…土俗或多過歲於山寺, 齋戒供養, 以邀新年之福, 吾可以爲公直指…’; 권5, 壬戌正月初一日; 권11, 甲子正月初一日 일기 참조.

49) 『남천일록』4, 辛酉, 12월 30일, ‘…七星殿高絕竊觀, 可以建醮設祀…’.

소멸되고 복덕과 건강을 기원하던 불교의 전통 칠성신앙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1868년 이후 조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회도>의 도상은 도불 성수신앙의 습합이 짙은 당시 특징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 사찰에 봉안된 도상들과 비교해 치성광여래를 비롯한 불교 칠성신앙을 다룬 화면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는 점에서 불교적 전통성이 짙으면서 보수성을 나타내는 지역적인 특색을 잘 나타낸다. 부산지역의 칠성신앙은 1885년 기전의 <치성광삼존도>에 치성광여래와 자미대제가 화면을 양분하여 거의 같은 비중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변화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부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수성노인이 등장하며 자미대제의 비중이 축소되는 일반적인 도상 변화의 경향을 고려해 보면 신흥사 <치성광삼존도>의 도상 역시 지역적인 보수성을 엿볼 수 있다.

반면 1891년 그려진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는 치성광여래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화면의 비중은 칠원성군에게 있어 이전 도상들과 달라진 세속화된 신앙의 특색을 여실히 반영한다. 일제강점기 경남 용화사에서 개관한 <북두칠성연명경> 변상도는 치성광여래삼존과 함께한 칠원성군으로 구성된 화면과 수성노인, 삼태성과 남두육성이 그려진 화면으로 구성되었다. 수성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화면은 삼각산 도선사에서 판각했던 <연생경> 변상도와 도상적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는 19세기 중후반 서울과 경기지역에 만연하였던 도교적 성격이 강한 신앙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선암본>과 비교하여 이 변상판화에 치성광여래 삼존도상이 더해진 것으로 불교적인 전통을 보이는 신앙의 지역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도상에서 조선전기 불교의 칠성신앙을 대변하는 칠성여래가 사라진 것은 근대기에



〈그림 25〉 복두칠성연명경 변상도, 1938년, 18.3×49.6cm,
경남 용화사.

진행되었던 칠원성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칠성신앙의 영향 때문이다.<그림 25>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의 화면은 불교적 요소와 더불어 도교의 특징적인 모티프인 자미대제와 수성노인은 화면에서 급격히 축소되거나 사라진 반면 칠원성군은 거의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승되던 치성광여래도상과 또 다른 새로운 구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화면의 구성은 신행이 간략화되고 세속화되면서 기복적 의미가 강조되며 운명을 다스리는 성신으로 수명과 복을 주는 칠원성군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19세기 후반 신앙의 성격을 반영한다.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를 비롯해 화면에서 칠원성군이 과할 정도로 비중이 높게 묘사되는 치성광여래도상은 칠원성군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무속의 칠성도 도상과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신앙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다.

V. 맺음말

9세기 중반 한반도로 전래 된 치성광여래 신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중적 호응을 반영하며 그 모습을 달리했고 이 사실은 치성광여래도상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확인된다. 九曜와 함께 어울려 구성되던 고려의 도상은 조선 전기 약사여래 신앙과 관련을 가지면서 약사칠불을 의미하는 칠성여래라는 새로운 칠성 모티프를 출현시키는 변화를 나타낸다. 16세기 치성광여래 신앙은 북두본명소재신앙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지면서 칠성 각각을 나누어 그려내는 칠성각부도라는 특징적인 도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된다.

시대에 따라 도상의 구성을 달리하는 치성광여래도의 특성에 의거해 살펴본 <범어사 칠성각부도>,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회도>,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 <범어사 치성광여래회도> 4점은 부산지역의 당시 칠성신앙의 변화를 반영하는 실질적 유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칠성각부도상은 12상속 성신에 따른 개별적인 기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불화이기 때문에 <범어사 칠성각부도>는 불교의 정통적인 본명소재 방식에 의거 해 신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9세기 초 부산의 사찰에서 거행되던 칠성신앙이 도교적 색채가 짙은 서울과 경기지역 신앙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은 도상뿐만 아니라 심노송의 『남천일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세기 중반 부산지역에서 조성된 국박소장 <치성광여래회도>는 당시 다른 지역의 도상과 비교해 치성광여래 삼존의 비중이 도교적 모티프인 자미대제보다 큰 형태로 그려져 있어 불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정통성을 나타낸다.

1885년 기전이 그린 신흥사 소장 <치성광삼존도>는 각부도 형태이기는 하지만 19세기 중반기의 도상과는 달리 서울과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치성광여래 도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보이는 형태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91년 <범어사 극락암 치성광여래 회도>는 단순화된 기복신앙으로 변화하면서 칠원성군으로 맞춰진 단순화되고 세속화된 신앙을 반영한다. 19세기 조성된 부산의 치성광여래도 도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19세기 중반까지 불교의 정통성을 보여주던 부산지역 칠성신앙의 보수적인 성향이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종교성의 퇴화현상이라는 신앙의 世俗化를 통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법전, 『기암집』, 성현, 『용재총화』, 심노승, 『남천일록』, 이문건, 『묵재일기』

2. 단행본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상지사, 2007.

_____, 『우리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원, 2008.

박은경 외, 『범어사의 불교미술』, 석당학술총서 19, 2011.

서운길, 『고려밀교사상사 연구』, 불광출판사, 1994.

정진희,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으로 살펴본 한반도 점성신앙』, 양사재, 2021.

3. 자료집

연화산 옥천사, 『蓮華山 玉泉寺誌- 玉泉寺의 향기』, 1999.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범어사 사찰재산대장』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서울특별시 자료집』, 2013,

4. 논문

김경미, 『화승 하은 응상의 교유관계와 불화 특징 고찰』, 『강좌미술사』 52, 2019.

- 김윤경,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전개와 변용-동학 증산교를 중심으로」, 『도교문화 연구』 39, 2013.
- 곽성영(승범), 「생전예수제의 현장론적 이해와 의례의 축제성 연구」, 동방문화대학 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문명대, 「1861년 선종작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의 특징과 의의」, 『강좌미술사』 46, 2016.
- 박은경,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연구」, 『문물연구』 26, 2014.
- 이은옥, 「범어사 소장 칠성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이정은, 「범어사 극락암의 칠성도 조성과 만일회」, 『정토학연구』 25, 2016.
- 정진희, 「조선전기 치성광여래 신앙연구」, 『선문화연구』 19, 2015.
- , 「한국 치성광여래 신앙과 도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_a.
- , 「서울 안양암 금륜전 치성광여래 조상과 불화연구」, 『서울학연구』 69, 2017_b.
- , 「조선후기 칠성신앙의 도불융합 연구」, 『정신문화연구』 42, 2019.
-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치성광여래도 도상연구-칠성각부도상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27, 2020_a.
- , 「치성광여래도에 그려진 신선문자도상 고찰」, 『한국민화』 13, 2020_b.
- , 「중봉당혜호의 작품과 화맥연구」, 『선문화연구』 30, 2021.
- 차재선, 「조선조 칠성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투고일 : 2021. 10. 18. 심사완료일 : 2021. 12. 03. 게재확정일 : 2021. 12. 07.

| Abstract |

Busan's Chilseong faith and the tejaprabha painting in the 19th century

Jung, Jin-Hee

Tejaprabha painting is good data to inf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ith through times, as the composition of the painting varies depending on the form of faith. Among 200 Tejaprabha paintings in the 19th century, the paintings of the Busan area are two in Beomeosa Guekramam and one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Tejaprabha painting, in 1861 by Seonjong is a painting that is divided into 11 sections in order to reflect Buddhism's faith in the Bukdu. Chiseong Gwangyeorahodeo, kept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ainted Chiseong Gwangyeorae and Jeyo Seongsu together reflecting the conservatism of the Buddhist holy spirit in Gyeongsang-do region during the time when the Taoist holy spirit was mixed. The Tejaprabha painting by Mingyu in 1891, clear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secularized faith through the distinct feature that when Chilwonseonggun is emphasized. The prayer held at Chilseongjeong Hall of Jangansa Temple was for good luck and health after the disappearance of Simnosong Samjaepalnan, who was exiled to Gijang in the early 19th century, is based on the tradition of Buddhist holy faith. The two paintings of Chiseong Gwangyeorae, painted in the Busan area in the mid-19th century, show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conservative tendencies that follow the Buddhist traditions. The Buddhist tradition that could be seen in faith was changed to a simplified Gibok belief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it can be seen in Beomeosa Temple

Geungnakam Chiseonggwangyeoraehoedo, that it was changing to a form showing the general universality seen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se changes examined through the three Tejaprabha paintings in the 19th century in the Busan area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how the secularization of faith, a phenomenon of deterioration of religious nature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as a practical relic.

Key words: Tejaprabha paintings, Seven stars(Chilseong), Chilwonseonggun, Chilseonggakbudo, Seven star faith.